

로버트 라우센버그
Japanese Clayworks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로버트 라우센버그

Japanese Clayworks

잘츠부르크 빌라 카스트
2022년 4월 8일—7월 9일

Mirabellplatz 2, 5020 Salzburg
ropac.net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클레이 작업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전시.

작가의 두 가지 조형 예술 작품 시리즈 중 만나기 어려웠던 작품들을 로버트 라우센버그 재단(Robert Rauschenberg Foundation)과의 협력을 통해 타데우스 로팍 잘츠부르크에서 선보인다.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Japanese Clayworks> (1982/1985)와 <Japanese Recreational Clayworks> (1982-83/1985)의 주요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1982년부터 작가의 작업에서 볼 수 있는, 그가 추구한 주요한 혁신을 대표하는 두 가지 조형 시리즈가 특히 돋보인다. 라우센버그의 예술 인생 전반에 있어서 특정 기간 동안 제작된 일련의 작품 중 일부는 작품이 제작된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1982~1983년 뉴욕의 Leo Castelli's gallery(레오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이 시리즈 중 일부가 전시된 바 있다.

<Japanese Clayworks> 는 라우센버그의 <Combines> (1954-64) 및 <Spreads> (1975-83)를 연상시키는 조각적 요소와 고대와 현대 일본의 사진 및 회화적인 붓놀림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회화와 조각을 결합하여 예술 범주들 간에 존재하는 경계를 허물었다.

라우센버그는 도자기 전문 제조업체인 Otsuka Ohmi Ceramics Company(오츠카 오미 도자기 회사, OCCC)에서 이 작품이 가마에서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양 예술사에서 역사적인 걸작이라 여겨지는 작품의 복제품들을 접하게 되었다. 조립식 세라믹 패널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부터 추출한 일본의 현대적 이미지에 작가의 붓놀림을 더하여 제작된 <Japanese Recreational Clayworks>은 복제품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도자기 회사에서 접한 이미지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탄생된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Mona Lisa)> (1503-1519)를 재현한 작품들만으로 구성된 공간도 관람할 수 있다. 작품에서 사용된 도상은 라우센버그의 가까운 친구이자 작가의 연작 <L.H.O.O.Q.>(1919)에 영감을 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차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라우센버그는 15년 동안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고대 일본 도자기의 전통과 현대적인 혁신 요소를 결합시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도자 작품을 제작하였다. 라우센버그는 오츠카 오미 도자기 회사(OCCC)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실크 스크린으로 생산된 이미지를 얇지만 견고한 세라믹 지지대 위에 구현할 수 있었다.

그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현지 소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장인들과 소통하고 연구하였는데, 이는 작가 작업 세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작가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접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를 수용했으며, 물질의 잠재성을 실험하고 매체와 독창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등 작가적 연구에 매진했다.

라우센버그가 그의 작업 세계 전반에 걸쳐 지속한 예술, 장인 정신 및 기술 간의 획기적인 교차점 연구는 예술사에 수많은 중요한 질문들을 이끌어냈다. 또한, 예술가로서 시급한 정치,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평화와 문화 간 이해에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기여하고자 점차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보편적으로 유의미한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더불어 일본에서의 경험은 추후 1984년부터 1991년 사이 전 세계 10개국에서 확립된 라우센버그 해외 문화 교류(Rauschenberg Overseas Culture Interchange, ROCI)의 초석이 되었다.

<Japanese Clayworks>는 라우센버그가 일본 시가라키에 오랜 시간 머물며 오츠카 오미 도자기 회사(OOCC)와 협력하여 제작한 첫 번째 시리즈이다. 작가는 현지 화학자들과 함께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한 이미지가 이후 도자기와 융합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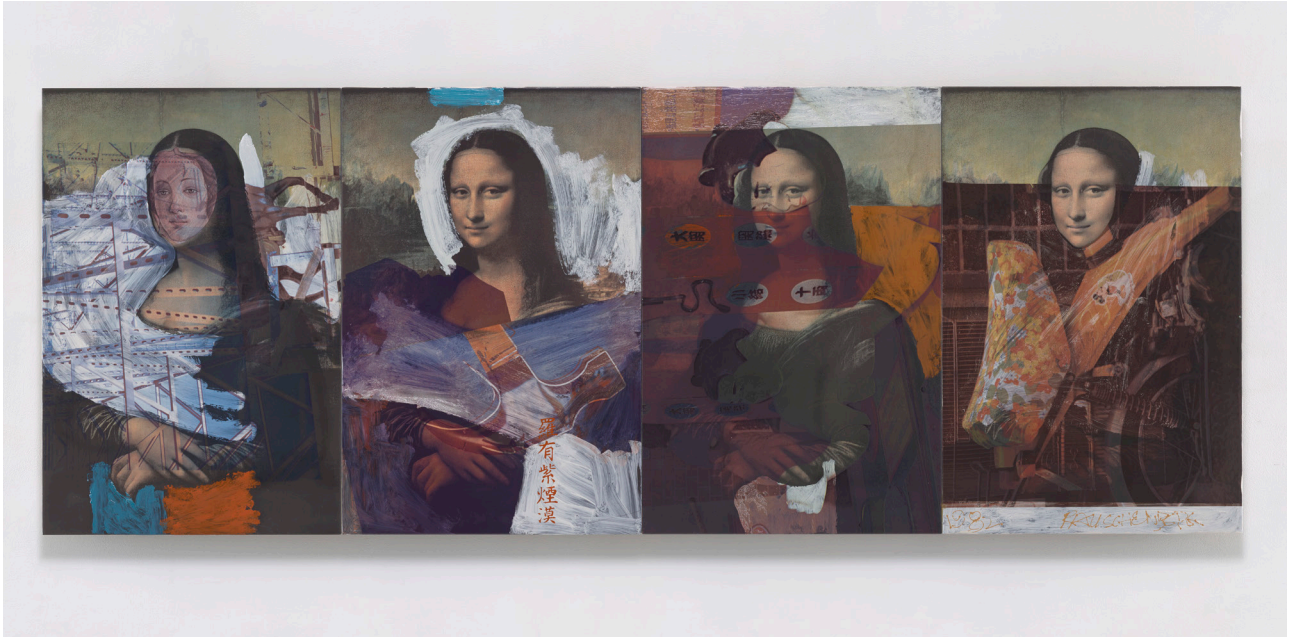


1. Robert Rauschenberg, *Rice Blessings (Japanese Claywork)*, 1985.

하는 유약을 생산하였다. 이 작품은 라우센버그가 그의 컬러 사진을 예술 작품에 통합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렇게 생산된 이미지들은 대량 생산품인 일본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문양들과 조화를 이룬다. 작품에는 대문자로 쓰여진 작가의 특징과도 같은 서명이 담겨있으며, 중국 한자를 변형한 일본의 칸지(kanji)로 음역된 그의 성이 적혀있기도 하다. 라우센버그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이 제작되고 그 영감의 토대가 된 문화적 맥락에 존중을 포함과 동시에 작가적 존재를 드러낸다.

협업은 자칫하면 눈이 멀 수도 있는 강력한 한 가지 의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 주는 일종의 처방이나 장치라고 생각한다. [...] 프로젝트에 더해지는 개인은 각각 무려 10배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로버트 라우센버그, 1987

<Japanese Recreational Clayworks>에서 구현된 편편한 화면은 개념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작가의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혁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 같은 도자기 표면에 의해 본래 유화가 지닌 고유의 질감은 사라지지만, 작가 특유의 생기 있는 색감이 돋보이는 붓놀림을 통해 작품에 회화적 성격을 가미한다.



2. Robert Rauschenberg, *Pneumonia Lisa (Japanese Recreational Claywork)*, 1982.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이미지를 추출 및 차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은 라우센버그의 특징적 기법으로 195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사용되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작가의 손과 기계로 재현된 이미지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차용이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독특함과 다중성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의 결과물이며, 또한 뒤샹의 레디메이드(readymade)라는 개념을 반영한다.

위대한 예술 애호가이기도 한 라우센버그는 토마스 게인즈버러(Thomas Gainsborough)의 <The Blue Boy>(1770)라는 그림에서 감명을 받아 예술가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서양 예술의 도상들을 자신의 작품에 접목하고 또 일상적인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관람자의 상상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원작의 서사를 초월하는 새로운 시각을 도출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병렬하는 방식은 개별적 이미지를 나열했을 때 각각의 이미지가 가지는 힘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게 된다. 단일적인 해석을 지양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각자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또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라우센버그와 오츠카 오미 도자기 회사(OCCC) 간의 협업의 절정은 상징적인 대형 작품 <Mirthday Man(Ceramic) II>(1998)에서 잘 나타난다. 1997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에서 개최된 작가의 회고전 이후 도자기로 다시금 재현된 이 작품은 자신의 전신 엑스레이 촬영결과물과 더불어 그의 컬러 사진, 그리고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의 <비너스의 탄생>(c. 1485)에 대한 묘사까지 담겨 있다. 라우센버그의 7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제작된 이 작품에서 형상화된 이미지들은 작가 본인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라이트모티프(leitmotif)들이 통합된 하나의 자화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작품이미지와 더불어 로버트 라우센버그 재단(Robert Rauschenberg Foundation)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크리스틴 클레벤슨(Kristen Clevenson)의 에세이와 이사회 회장인 크리스토퍼 라우센버그(Christopher Rauschenberg)의 소개글이 수록된 도록이 출간될 예정이다.



3. Robert Rauschenberg, *Mirthday Man (Ceramic) II.* 1998.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은 2015년 4월부터 로버트 라우센버그 재단의 파트너로서 <Night Shades>, <Phantoms>, <Borealis>, <Salvage> paintings and <Spreads> 등 1970년대,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반에 작가의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에 중점을 둔 전시를 주최한 바 있다.

이 전시는 로버트 라우센버그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최되었다.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 잘츠부르크에서 주최하는 <Japanese Clayworks>와 함께 뉴욕 글래드스톤 갤러리(Gladstone Gallery)의 <Robert Rauschenberg: Venetians and Early Egyptians(1972-1974)>(2022년 5월 4일 - 6월 18일)과 뉴욕 므누친 갤러리(Mnuchin Gallery)의 <Robert Rauschenberg: Exceptional Works(1971-1999)>(2022년 5월 3일 - 6월 1일)이 개최될 예정이다. 재단의 미션과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rauschenbergfoundation.org를 참조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rauschenbergfounda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가 소개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60년이 넘는 작가 생활 동안 광범위한 경험, 평생에 걸친 협업, 새로운 소재와 기술에 대한 실험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해왔다. 그는 특정한 사조로 구별되기를 거부했지만 추상 표현주의 이후 거의 모든 전후 예술 발전의 선구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의 초기 작품인 <Combines>는 회화와 조각, 핸드메이드와 레디메이드 사이, 예술가의 손과 기계적으로 재생산된 이미지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일상적인 물건을 포함시켜 사진계에 혁명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를, '거리에서 얻은 선물(gifts from the street)'이라고 불렀으며 예술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작품의 경계를 재정의하고 확장했다.

라우센버그는 미국 캔자스시티 아트 인스티튜트(Kansas City Art Institute)와 파리 줄리앙 아카데미(Académie Julian)에서 수학하였지만, 젊은 예술가로서 조형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게 된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실험적인 학교 블랙 마운틴 칼리지(Black Mountain College)에서였다. 그는 1948년 그 학교에 등록했는데 그곳에서 동료 예술가이자 후에 그의 아내가 되는 수잔 베일(Susan Weil)을 만났다. 또한 화가이자 바우하우스(Bauhaus) 교사로 재직했던 요제프 알버스(Josef Albers)에게 사사했으며, 오랜 친구이자 예술적 동료가 된 작곡가 존 케이지(John Cage)와 안무가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과도 교류하였다. 세 사람은 시, 음악, 무용, 영화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인 <Theatre Piece No. 1>(1952)과 천장에 매달린 라우센버그의 <White Paintings>(1951) 작업에 참여했다. 존 케이지는 이에 영감을 받아 <4'33''>(1952)를 작곡함으로써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레임워크를 확립한 바 있다.

1953년 말까지 라우센버그는 자신이 발견한 재료와 물건들을 그의 <Red Paintings>(1953-54)에 통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의 획기적인 작품 <Combines>가 탄생하게 되었다. 염소 박제부터 도로 표지판, 침대의 킬트 이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합된 이 작품들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물고 관람자와 작품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창출했다. 1962년, 그는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자신의 사진으로부터 가져온 실크 스크린 이미지와 붓놀림을 결합하여 회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1963년 뉴욕 유대인박물관(Jewish Museum)에서 작가의 첫 번째 회고전을 가졌고 그 이듬해인 1964년에 개최된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에서 국제 회화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후 라우센버그는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의 연주자, 장인 및 엔지니어와의 협업을 해왔다. 작가는 안무가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 폴 테일러(Paul Taylor) 등의 전위적 작품을 위한 조명, 세트 및 의상 디자인은 물론, 1963년 <Pelican>을 시작으로 자신의 공연을 위한 안무도 기획했다. 그는 엔지니어 빌리 클뤼버(Billy Klüver), 프레드 발트하우어(Fred Waldhauer) 및 아티스트 로버트 휘트먼(Robert Whitman)과 함께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예술과 기술 실험, E.A.T.)을 공동 설립하였다. 이는 아티스트와 엔지니어의 협업 프로젝트로, 라우센버그는 클뤼버와 함께 트랜지스터 라디오 기술을 통합한 <Oracle>(1962-65)과 반응형 조명 설치물인 <Soundings>(1968)와 같은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1970년에는 플로리다주 캡티바에 영구적으로 터를 잡고 버려진 상자로 만든 벽 부조 작품 <Cardboards>(1971~72)와 껌맨 천으로 제작한 <Jammers>(1975-76)를 비롯한 물질성(materiality)에 중점을 둔 여러 작품을 창작하였다. 더불어, 용매 전사 작품 <Hoarfrosts>(1974-76), 멀티미디어 작품 <Spreads>(1975-83)는 물론, <Shiners>(1986-93), <Urban Bourbons>(1988-96) 및 <Borealis>(1988-92) 등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금속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인쇄 기술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라우센버그는 자신의 예술 활동 외에도 예술가와 창작 커뮤니티 전체의 대변인으로써 1970년 9월, 비상금으로 예술가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Change, Inc.를 설립했으며 1984-91년에는 Rauschenberg Overseas Culture Interchange(ROCI) 프로젝트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라우센버그는 이 광범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위해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중국, 티베트, 일본, 쿠바, 소비에트 연방, 독일,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을 다니며 창의적인 과정을 통한 문화간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4. Robert Rauschenberg, *Testimony (Japanese Claywork)*, 1985.

For further press information and images please contact:

Patricia Schmiedlechner, Press Manager, Salzburg

patricia.schmiedlechner@ropac.net

Sarah Rustin, Global Director of Communications

sarah.rustin@ropac.net

Credits

Titelbild: Robert Rauschenberg, *All Abordello Doze 2 (Japanese Recreational Claywork)*, 1982 (Detail). Transfer und Glasur auf hartgebrannter japanischer Kunstkeramik, 134.7 x 133.3 cm. **1. Robert Rauschenberg, *Rice Blessings (Japanese Claywork)*, 1985.** Transfer und Glasur auf hartgebrannter Keramik, 180.2 x 199.8 cm. **2. Robert Rauschenberg, *Pneumonia Lisa (Japanese Recreational Claywork)*, 1982.** Transfer und Glasur auf hartgebrannter Keramik, 81.8 x 220 cm. **3. Robert Rauschenberg, *Mirthday Man (Ceramic) II*, 1998.** Transfer und Glasur auf hartgebrannter Keramik, 313.1 x 455.5 cm. **4. Robert Rauschenberg, *Testimony (Japanese Claywork)*, 1985.** Transfer und Glasur auf hartgebrannter Keramik, 180 x 200 cm. **Alle Abbildungen** © The Robert Rauschenberg Foundation / Bildrecht, Wien, 2022. Courtesy The Robert Rauschenberg Foundation and Thaddaeus Ropac gallery | London · Paris · Salzburg · Seoul.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